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023)

-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결과 -

소득분배    개인소득    국세통계

이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oungsampk.github.io/labor\\_stat/](https://youngsampk.github.io/labor_stat/)

## 저자

박영삼

상임연구위원 | 노동데이터센터장

✉ [youngsampk@gmail.com](mailto:youngsampk@gmail.com)

## 발행일

2025년 3월 25일 (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4일)

## 요약

국세청의 2023년 귀속본 근로소득·종합소득·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감소하는 등 개인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의 개인소득 분배개선은 저소득층의 소득상승이나 조세에 의한 정책효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진데 따른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불평등 차이를 의미하는 조세의 불평등개선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와서 고소득층의 평균세율이 하락하고 있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세후 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약화되고 세후 소득집중도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 키워드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개인소득분배, 불평등, 조세효과

## 차례

일반 현황 - 통합소득 평균 4,123만원(2.2% ↑) 중위값 2,887만원(4.1% ↑) . . . . .	1
소득증가율 2018~19년 vs. 2020년 이후 양상 확연히 달라져 . . . . .	1
최상위 평균소득과 경계값 - 상위10% 평균 1억 5,179만원, 경계값 8,257만원 . . . . .	4
소득집중도 - 최근 2년 개선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보다 높고 2019년 수준 회복 못해 . . . . .	4
소득분배지표 - 코로나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소득분배지표도 2년 연속 개선 . . . . .	7
고소득층 세율 하락, 조세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약화 . . . . .	7
평가와 시사점 . . . . .	9
참고문헌 . . . . .	11

## 일반 현황 - 통합소득 평균 4,123만원(2.2% ↑) 중위값 2,887만원(4.1% ↑)

1인당 소득증가율 통합 2.2%, 근로 2.8%, 종합 2.3%, 물가상승률 3.6%에 모두 못미쳐

국세청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통합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sup>1</sup>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자는 20,852천명, 종합소득 신고자는 11,481천명이었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중복 신고인원 5,446천명을 1인으로 합산한 통합소득 인원은 26,888천명이었음.

Figure 1: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포괄대상(2023년)

소득구분	근로소득	종합소득	(중복인원)	통합소득
인원	20,852,234	11,481,360	5,445,629	26,887,965
소득액	903조 3,839억원	385조 6,605억원	180조 3,576억원	1,108조 6,868억원
평균소득	4,332만원(2.8%)	3,359만원(2.3%)	3,312만원	4,123만원(2.2%)
중위소득	3,272만원	1,575만원	-	2,887만원

주 : 1)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2) 종합소득 :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3) 통합소득 : 근로소득+종합소득(중복신고자 인별 합산)

\*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2천만원미만 이자배당소득, 1,200만원 미만 사적연금)과 퇴직·양도소득 등은 제외

통합소득 총액은 1,108.7조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소득자 수가 2.5% 증가하여 1인당 평균소득은 4,123만원 2.2% 증가에 그치고 중위소득은 2,887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음. 이러한 낮은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증가에 그친 것을 의미함

- 근로소득은 총액 903조 3,8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2.8% 증가하였으며 중위값은 3,272만원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소득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1,538조 1,312억원에 달했으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 금액은 총 385조 6,605억원이었음. 이에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은 3,359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에 그쳤고 중위소득은 1,575만원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신고자 수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근로소득자는 313천명 증가(1.5%), 종합소득자는 1,206천명(11.7%), 통합소득자는 657천명(2.5%) 각각 증가 ⇒ 종합소득자의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매우 높은 상황. 플랫폼특고,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증가와 N잡러 증가의 영향

## 소득증가율 2018~19년 vs. 2020년 이후 양상 확연히 달라짐

백분위를 구분하여 전년 대비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하면 2019~19년 시기와 2020년 이후 시기가 확연히 달라짐

<sup>1</sup> 국세청의 천분위 소득자료에 대한 분석은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김상조 2014)가 처음으로 시도한 바 있는데, 당시 보고서는 2007~2012년 기간까지의 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과세미달자에 대한 정보가 제외돼 있었다. 2012년 이후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천분위 소득자료가 국회로 제출되기 시작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서형수 의원이 2012~2016년 기간의 통합-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서형수의원실 2018). 이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이후의 2020년까지의 소득천분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이 글은 서형수 의원실(2012~2016)과 소득주도성장특위(2017~2020)에서 정리한 자료에 2021~2023년 자료를 추가로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Figure 2: 전년 대비 소득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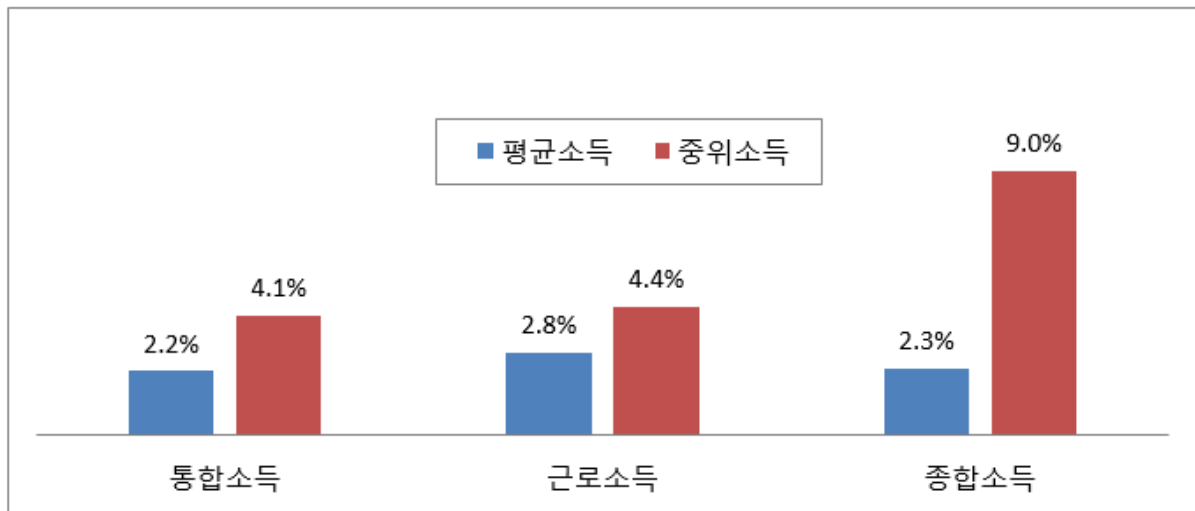


Figure 3: 소득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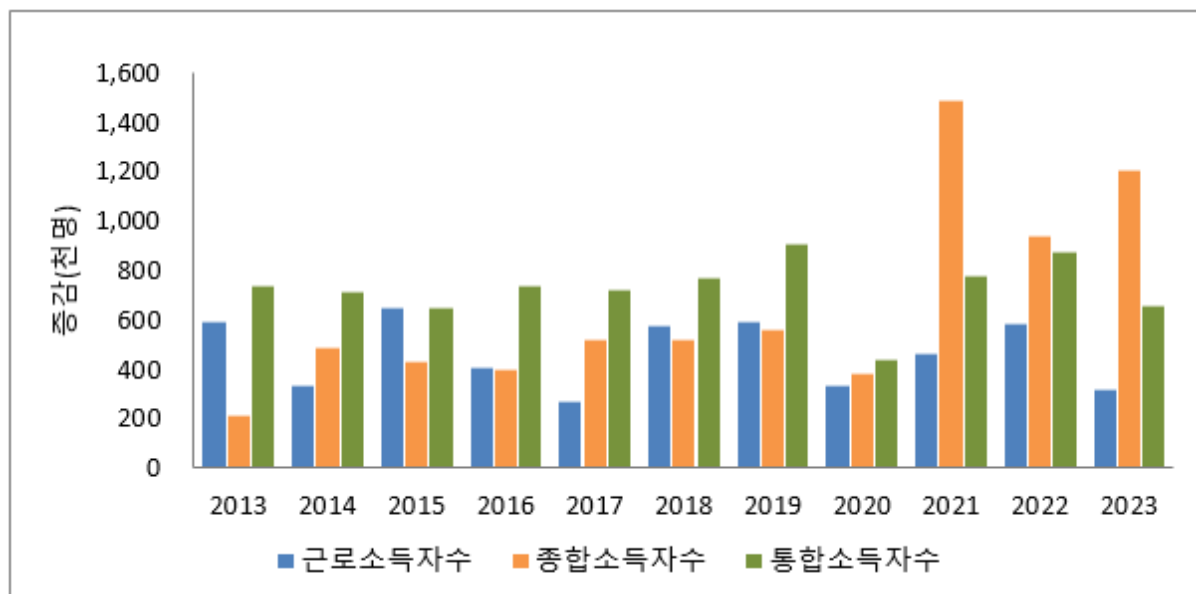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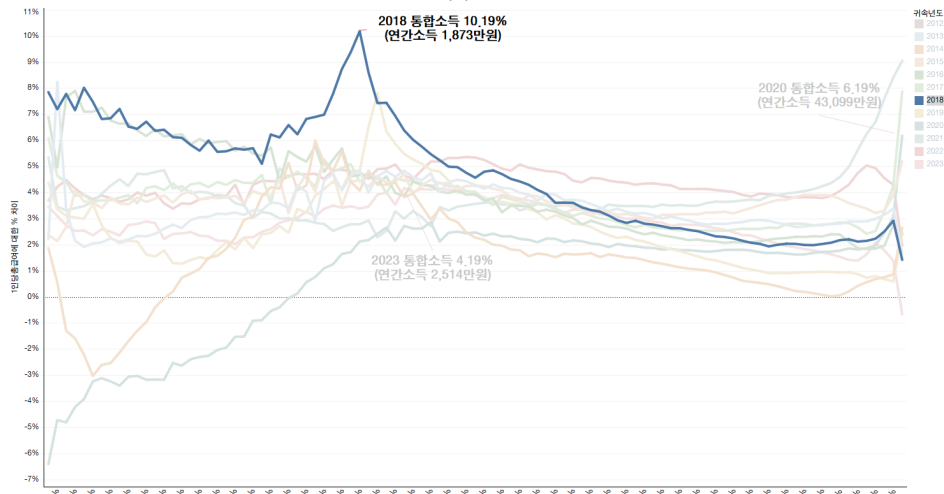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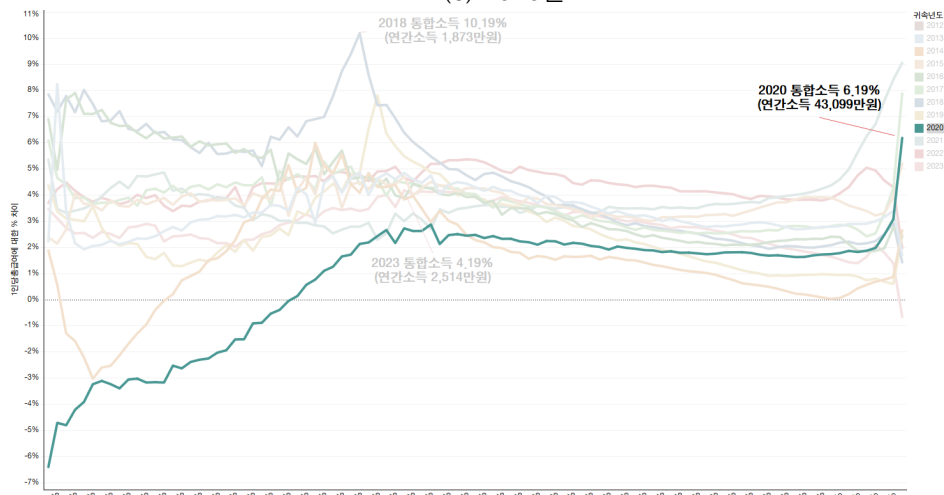


Figure 4: 가장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계층과 소득증가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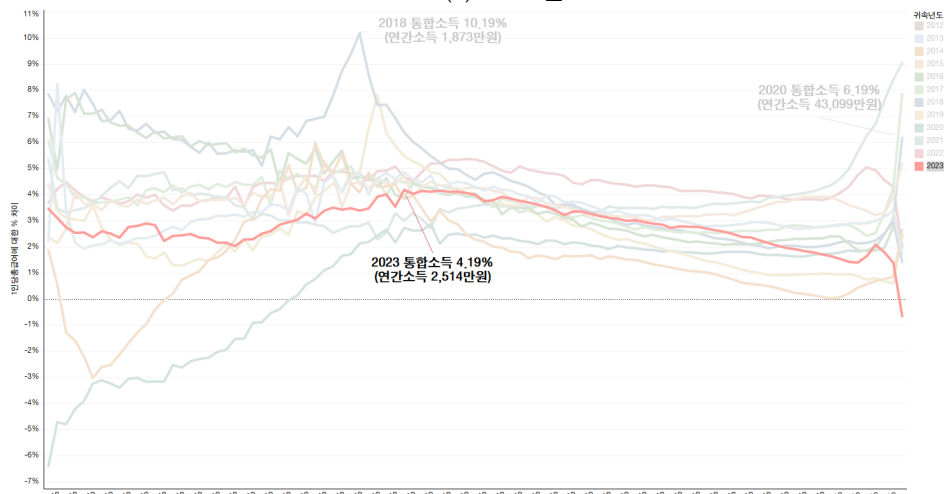
(a) 2018년



(b) 2020년



(c) 2023년



- 2018년에는 1,873만원 연소득자(하위38분위)의 소득증가율이 10.2%에 두 자리에 달했고 사상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이 해의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월급기준 157만원이었으며, 연간총액으로 1,889만원으로 거의 정확히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였음
- 2020년에는 상위1%에 해당하는 연소득 4억3,099만원 소득자의 증가율이 6.2%로 가장 높았지만 하위50% 이하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음.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에 그쳤고 최저임금 수준(연간 2,154만원) 연소득자의 소득증가율은 2.7%에 불과했음
- 2023년에는 연소득 2,514만원 소득자(하위43분위)의 소득증가율이 4.19%로 가장 높기는 했고 이들이 최저임금 연소득자(2,413만원)에 해당되는 계층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득증가율이 낮아진 상황

최근 수년 간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된 해에는 최저임금 수준(통합소득 분위로는 하위30% 수준)의 소득자 증가율이 높았고, 최저임금이 낮게 인상된 해에는 해당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상위 평균소득과 경계값 - 상위10% 평균 1억 5,179만원, 경계값 8,257만원

통합소득 상위1% (26.8만명) 소득경계값 처음으로 2억원 넘겨, 근로소득은 1억 8천만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인별로 합산한 통합소득 기준 최상위0.1%의 평균소득은 17억 3,681만원이며, 상위1%는 4억 7,619만원, 상위5%는 2억 78만원, 상위10%는 1억 5,317만원, 상위20%는 1억 1,144만원의 평균소득 수준을 보였음

- 상위0.1%에 속하기 위한 소득경계값은 11억 6,905만원이었으며, 상위1%에 속하기 위해서는 2억 249만원, 상위5%는 1억 1,211만원을 넘어야 했음. 상위10%의 소득경계값은 8,402만원이고 상위20%에 속하기 위해서는 5,850만원을 넘어야 함
-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0.1%에 들기 위해서는 6억 9,051만원이 넘어야 했고, 상위 1%는 1억 8,014만원, 상위5%는 1억 1,172만원이 넘어야 함. 상위10%는 8,650만원을 넘어야 하고, 상위20%는 6,248만원을 넘어야 함
- 종합소득은 편차가 심해 최상위 0.1%는 18억 4,657만원이 넘어야 했고 상위1%도 2억 5,871만원, 상위5%도 1억 542만원을 넘겨야 함. 상위10%는 6,673만원을 넘어야 했는데, 종합소득자의 상위20% 경계값은 3,919만원으로 경계값이 매우 낮음

## 소득집중도 - 최근 2년 개선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보다 높고 2019년 수준 회복 못해

상위10%가 통합소득 37.1%. 근로소득 31.6%, 종합소득 52.1% 차지\*

2017~2019년 기간 동안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나, 코로나위기 발발로 2020~21년 상위층 소득점유비중이 다시 크게 증가. 2022~2023년에는 다시 2년 연속 상위소득 점유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높은 수준

Figure 5: 상위소득계층 평균소득과 경계값(2012~2023)

## (a) 통합소득

(단위: 만원)

		통합소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소득	상위0.1%	118,499	117,756	120,040	128,208	129,119	147,402	147,132	151,658	166,204	184,969	179,641	173,681
	상위 1%	32,179	32,729	33,599	35,348	36,197	39,051	39,609	40,587	43,099	47,003	47,931	47,619
	상위 5%	14,864	15,239	15,477	16,133	16,499	17,370	17,722	17,986	18,728	20,256	20,947	21,078
	상위10%	11,090	11,381	11,507	11,975	12,244	12,791	13,055	13,226	13,673	14,644	15,179	15,317
	상위20%	8,231	8,453	8,527	8,862	9,061	9,414	9,607	9,723	10,000	10,609	11,004	11,144
경계값	상위0.1%	79,265	79,392	81,346	86,359	87,659	98,099	98,398	101,186	109,897	121,148	119,942	116,905
	상위 1%	14,080	14,560	14,724	15,328	15,771	16,462	16,930	17,087	17,636	19,112	19,954	20,249
	상위 5%	8,477	8,723	8,766	9,068	9,237	9,472	9,675	9,754	9,934	10,526	11,043	11,211
	상위10%	6,482	6,662	6,670	6,930	7,092	7,287	7,434	7,505	7,634	7,954	8,257	8,402
	상위20%	4,477	4,604	4,640	4,791	4,891	5,016	5,131	5,196	5,290	5,483	5,705	5,850

## (b) 근로소득

		근로소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소득	상위0.1%	61,938	63,733	65,636	65,501	68,452	80,871	76,494	76,763	83,339	95,615	98,798	96,000
	상위 1%	21,600	22,268	22,959	23,512	24,379	26,417	26,658	27,044	28,560	31,730	33,134	33,208
	상위 5%	12,222	12,561	12,905	13,246	13,613	14,307	14,608	14,766	15,290	16,682	17,474	17,676
	상위10%	9,705	9,967	10,225	10,516	10,798	11,273	11,522	11,652	11,992	12,910	13,509	13,685
	상위20%	7,573	7,775	7,978	8,211	8,429	8,770	8,967	9,074	9,301	9,898	10,337	10,506
경계값	상위0.1%	44,439	45,787	47,300	47,747	49,698	56,524	54,930	55,524	59,667	67,547	70,233	69,051
	상위 1%	12,311	12,661	12,987	13,392	13,791	14,427	14,943	15,024	15,561	17,051	17,797	18,014
	상위 5%	8,210	8,415	8,628	8,879	9,069	9,331	9,557	9,660	9,837	10,459	11,004	11,172
	상위10%	6,443	6,610	6,769	6,998	7,184	7,417	7,586	7,683	7,819	8,168	8,493	8,650
	상위20%	4,614	4,737	4,876	4,994	5,120	5,303	5,433	5,517	5,622	5,847	6,084	6,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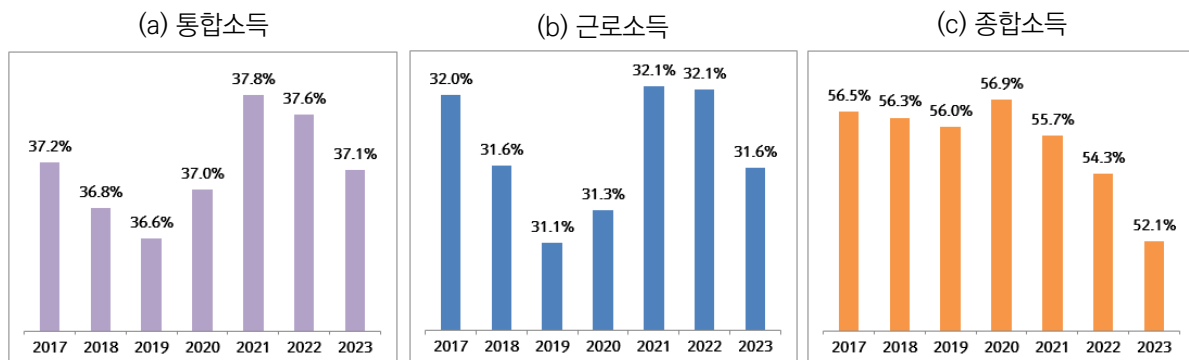
## (c) 종합소득

		종합소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소득	상위0.1%	265,245	260,500	251,906	268,575	258,602	303,186	294,645	299,450	324,661	333,317	305,052	279,038
	상위 1%	66,289	66,547	65,405	68,017	67,707	73,931	72,489	73,370	77,471	77,176	75,142	70,848
	상위 5%	24,622	25,209	24,873	25,599	25,606	27,308	26,903	27,108	28,060	27,814	27,655	26,737
	상위10%	16,052	16,508	16,207	16,676	16,680	17,674	17,396	17,523	18,028	17,850	17,849	17,486
	상위20%	10,309	10,563	10,262	10,577	10,597	11,179	10,990	11,085	11,334	11,248	11,322	11,271
경계값	상위0.1%	175,702	173,499	168,720	178,121	173,641	198,253	192,875	195,842	211,277	213,875	199,898	184,657
	상위 1%	23,523	24,469	24,372	24,794	25,133	25,992	25,787	25,909	26,279	25,847	26,457	25,871
	상위 5%	9,502	9,967	9,757	9,983	9,992	10,371	10,211	10,251	10,349	10,199	10,395	10,542
	상위10%	6,076	6,274	5,972	6,175	6,179	6,409	6,273	6,329	6,350	6,278	6,428	6,673
	상위20%	3,436	3,405	3,160	3,277	3,355	3,482	3,422	3,483	3,468	3,524	3,664	3,919



- 통합소득 상위10% 점유비중은 2017년 37.2%, 2018년 36.8%, 2019년 36.6%로 2년 연속 하락하다 2020년 37.0%, 2021년 37.8%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2~2023년에 37.6%, 37.1%로 다시 완화 추세
  - 2023년 상위10% 소득점유비중(37.1%)은 2020년(36.6%) 코로나 때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득집중도가 가장 낮았던 2019년(39.6%) 수준은 회복 못한 상태
- 근로소득은 2017~2019년 동안 상위10% 점유비중이 연속 하락(32.0% → 31.6% → 31.1%)했으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2021년 연속 상승한 뒤 2022~2023년 다시 하락
  - 근로소득 상위10% 점유비중 31.1%('19년) → 31.3%('20년) → 32.1%('21년) → 32.1%('22년) → 31.6%('23년)
- 종합소득도 2018~2019년 연속 하락(56.5% → 56.3% → 55.9%)했으나 2020년에 56.9%로 크게 상승한 뒤 2021~2022년 3년 연속 하락. 자영업자는 2020년 한 해만 소득집중도 상승
  - 종합소득 상위10% 점유비중 56.0%('19년) → 56.9%('20년) → 55.7%('21년) → 54.3%('22년) → 52.1%('23년)

Figure 6: 상위10% 소득 점유비중 추이(2017-2023)



최상위 0.1% 및 1%, 5% 소득비중과 상위20% 소득비중도 2017~2019년 빠르게 하락하다가 2020~2021년 코로나 발발 이후 모두 증가하여 소득집중도 심화. 2022~2023년에는 소득집중도 다소 하락

- 통합소득 상위0.1%, 상위1%, 상위5% 소득비중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0.1%p, -0.1%p, -0.4%p 하락했으나 2019~2021년 기간 동안에는 +0.6%p, +0.9%p, +1.3%p 증가하여 2017년 수준보다 악화된 상태로 회귀
  - 2021~2023년 기간 동안에는 -0.6%p, -0.6%p, -0.6%p 다시 하락. 최상위0.1%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상위1%, 상위5% 소득점유 비중은 2019년보다 나쁜 상태
- 근로소득 상위0.1%, 상위1%, 상위5% 소득비중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0.2%p, -0.3%p, -0.6%p 하락했으나 2019~2021년 기간 동안 +0.3%p, +0.7%p, +1.0%p 증가하여 2017년 수준보다 악화. 2021~2023년 -0.2%p, -0.2%p, -0.3%p 다시 하락했으나 2019년 수준 회복 못한 상태
- 종합소득은 상위1%, 상위5% 소득비중이 2020년 한해 동안만 증가한 뒤에 2020~2021년 기간 동안 연속 하락했고, 최상위0.1% 점유비중도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증가하기는 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 큰 폭으로 2년 연속(-0.9%p, -1.0%p) 다시 하락해 2017년 수준보다 전체적으로 상위소득계층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과 개인사업자의 최상위층 소득비중은 코로나와 경기상황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Figure 7: 소득계층별 점유비중 추이(2017-2023)

	통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17	'18	'19	'20	'21	'22	'23	'17	'18	'19	'20	'21	'22	'23	'17	'18	'19	'20	'21	'22	'23
상위0.1%	4.3	4.2	4.2	4.5	4.8	4.5	4.2	2.3	2.1	2.1	2.2	2.4	2.3	2.2	9.7	9.5	9.6	10.2	10.4	9.3	8.3
상위 1%	11.4	11.2	11.2	11.7	12.1	11.9	11.5	7.5	7.3	7.2	7.5	7.9	7.9	7.7	23.6	23.4	23.4	24.5	24.1	22.9	21.1
상위 5%	25.3	25.0	24.9	25.3	26.1	26.0	25.6	20.3	20.0	19.7	20.0	20.7	20.7	20.4	43.6	43.5	43.3	44.3	43.4	42.1	39.8
상위10%	37.2	36.8	36.6	37.0	37.8	37.6	37.1	32.0	31.6	31.1	31.3	32.1	32.1	31.6	56.5	56.3	56.0	56.9	55.7	54.3	52.1
상위20%	54.8	54.2	53.8	54.1	54.7	54.5	54.1	49.8	49.2	48.5	48.6	49.2	49.1	48.5	71.5	71.1	70.8	71.5	70.2	68.9	67.1
하위50%	15.6	16.2	16.5	16.2	15.9	16.0	16.2	18.8	19.5	20.2	20.1	19.9	20.0	20.4	8.8	9.0	9.1	8.6	9.4	10.0	10.6

주: 파란색은 소득집중도 완화됐던 시기, 붉은색은 소득집중도 심화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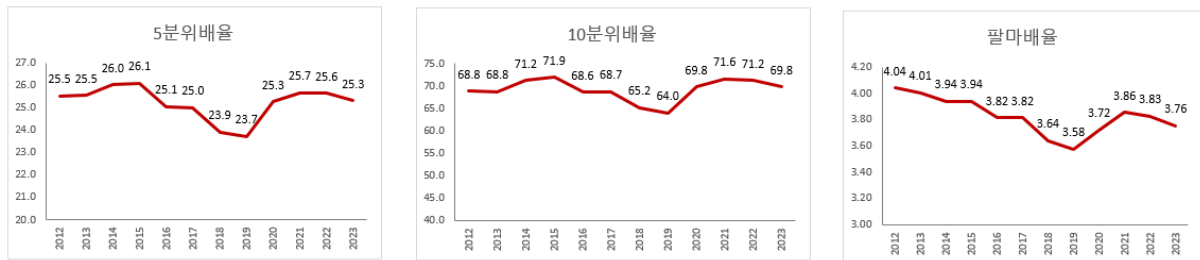
## 소득분배지표 - 코로나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소득분배지표도 2년 연속 개선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 등 분배지표<sup>2</sup>는 2017-2019년 기간 동안은 크게 개선되어 2019년 통합소득 분배지표는 국세청이 소득 천분위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좋은 최저치를 기록

- 5분위배율 최고 26.1('15) → 최저 23.7('19), 팔마비율 최고 4.04('12) → 최저 3.58('19)

그러나 코로나위기 발발 이후 2020~2021년 기간 동안 통합소득과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되었다가 2021~2023년 2년간 다시 개선되었으며, 종합소득 분배지표는 2020년 한해 동안 악화되었다가 2020~2023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상위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이 감소하면서 개선 추이를 보임

Figure 8: 통합소득 소득분배지표 추이(2012-2023)



## 고소득층 세율 하락, 조세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약화

2020~2021년 기간 동안 세전 통합소득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세후소득 기준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도 악화된 후 2021년 이후 완만한 개선

<sup>2</sup>국세청 소득자료는 상위층 소득의 정확성은 높으나 하위층 소득의 정확도가 낮고 변동성이 많아 하위소득층 포괄범위가 좁은 10분위배율 대신 5분위배율 또는 팔마비율을 사용

Figure 9: 근로소득 소득분배지표 추이(201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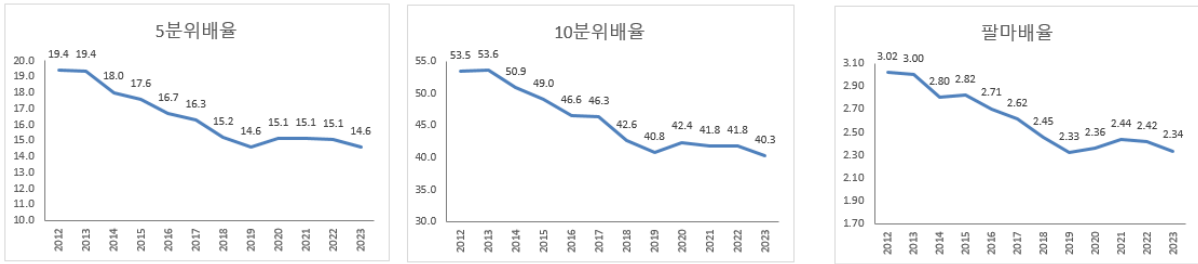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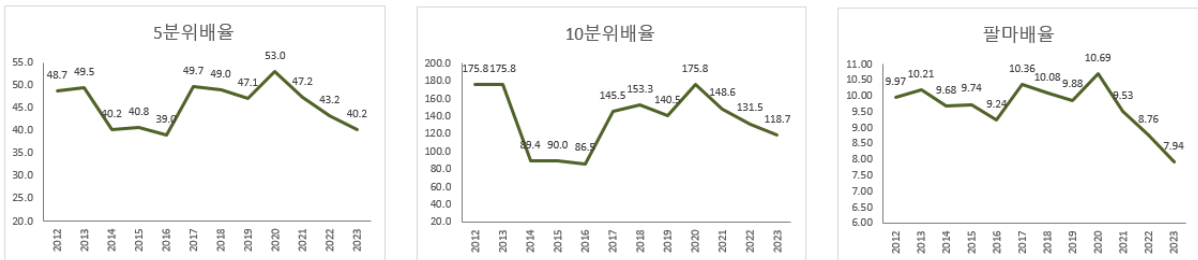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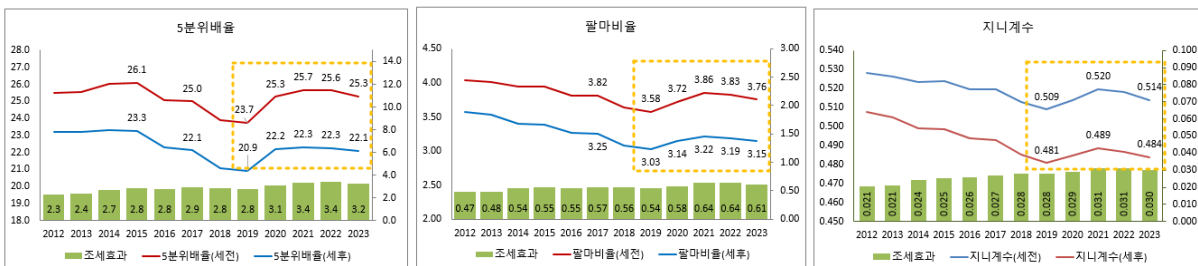


Figure 10: 종합소득 소득분배지표 추이(2012-2023)



- 2019년 대비 2021년 세전 통합소득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은 각각 1.96배, 0.28배 증가했으며, 세후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은 각각 1.40배, 0.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전 소득의 악화보다 세후 소득의 분배지표 악화는 그보다 덜 악화
- 2021년 대비 2023년 세전 통합소득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은 각각 -0.37배, -0.10배 개선되었으나 세후 통합소득의 5분위배율과 팔마비율은 각각 -0.23배, -0.07배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통합소득 5분위배율의 세전소득과 세후소득간 차이가 2022년 3.4배에서 2023년 3.2배로 줄어들고 팔마비율의 세전소득과 세후소득간 차이도 2022년 0.64배에서 2023년 0.61배로 조세에 의한 불평등 개선 효과<sup>3</sup>가 악화되고 있음

Figure 11: 통합소득 분배지표와 조세효과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악화되었던 개인소득 분배가 2021년 이후 다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그러나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불평등 차이를 의미하는 조세의 불평등개선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함께 상위소득 계층의 소득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상위소득층이 소득세를 부담하는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 이후 감세정책 등에 의해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임

<sup>3</sup>조세효과 = 세전 5분위배율 또는 팔마비율 - 세후 5분위배율 또는 팔마비율

Figure 12: 근로소득 분배지표와 조세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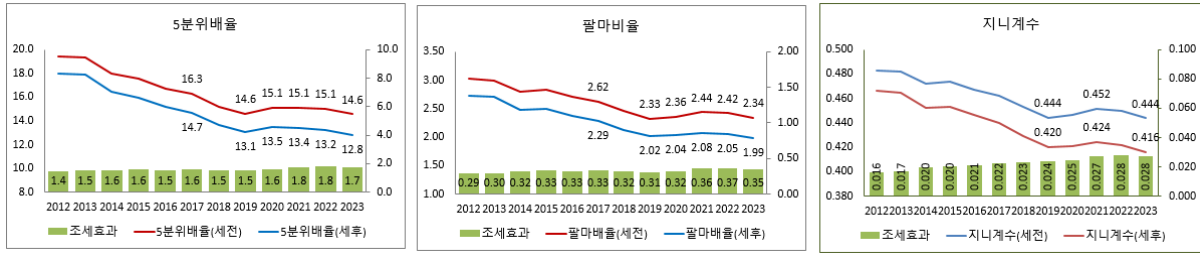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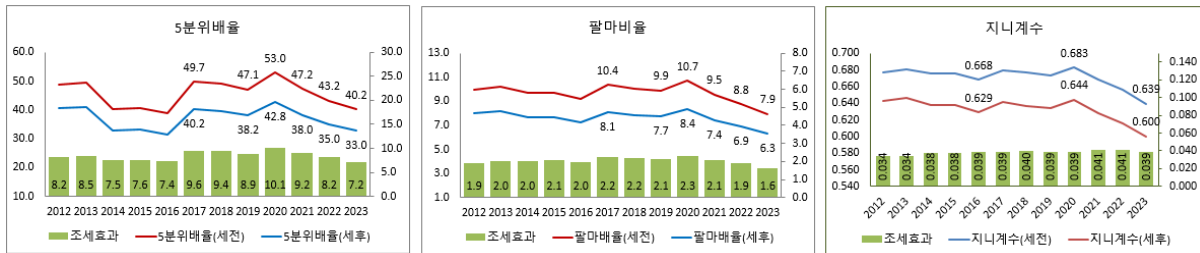


Figure 13: 종합소득 분배지표와 조세효과



- 통합소득 상위10%가 전체 소득세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2014년 80%를 차지했으나 하위90% 계층의 소득증가와 납세액 증가 등에 의해 2019년에 77.4%까지 하락했음. 2022년까지는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세액비중이 감소하였지만, 2022년 이후에는 평균세율이 하락하면서 세액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세에 의한 불평등 개선효과는 점점 축소될 위험이 있음
- 근로소득 상위10%가 근로소득세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2014년 76.8%를 차지했으나 2019년까지 72.5%로 하락했음. 2022년까지는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세액비중이 감소하였지만 2022년 이후에는 평균세율이 15.5%에서 15.1%로 하락하면서 세액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종합소득은 상위10%가 부담하는 소득세액 비중이 2021년 86.7%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평균세율과 세액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소득세의 감세가 추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세후 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약화되고 세후 소득집중도가 심화될 위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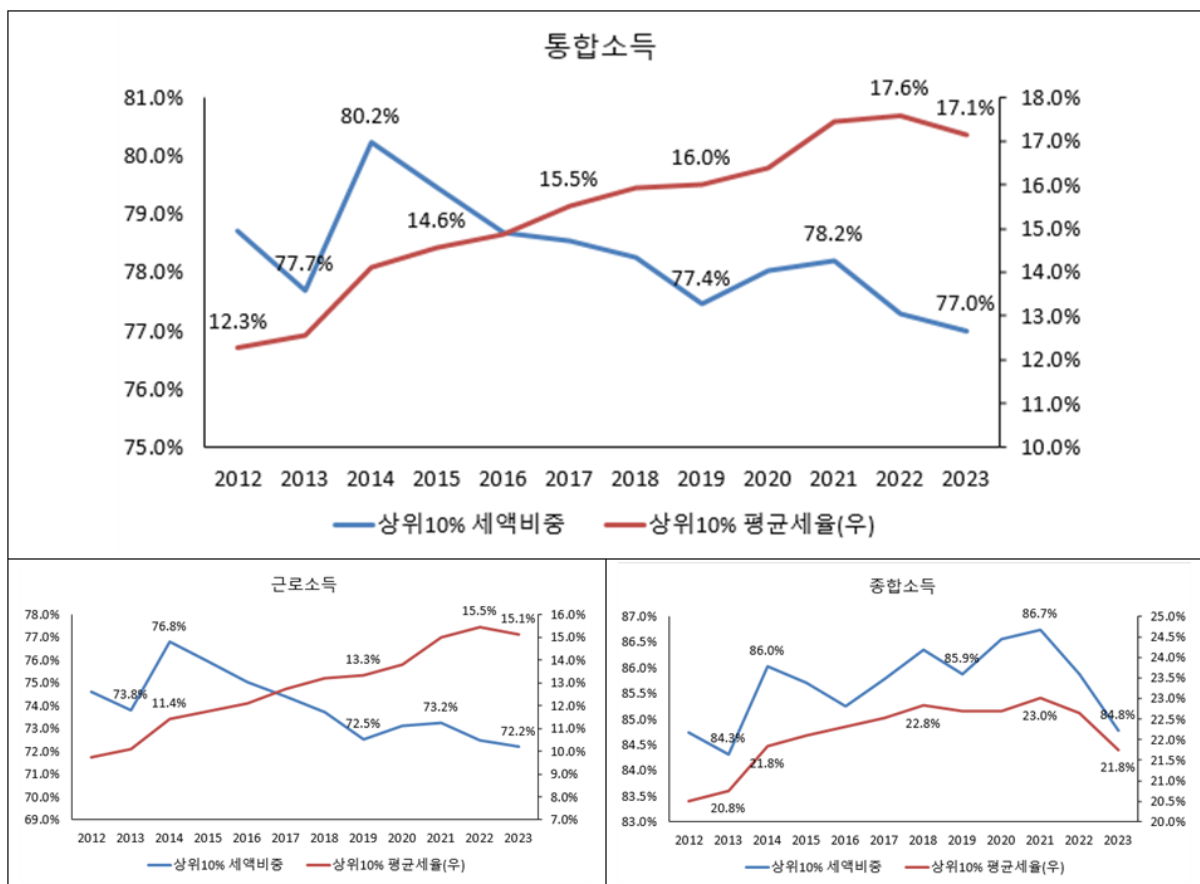
## 평가와 시사점

국세청의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간 동안 2년 연속 소득집중도가 완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됨

하지만, 2023년 들어 고소득층의 평균세율이 하락하고 고소득층이 소득세를 부담하는 비중이 하락하면서 조세의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고소득에 대한 추가감세 등이 진행될 경우 조세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더욱 약화되고 소득집중도가 심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될 위험이 있음

Figure 14: 상위10% 계층의 소득세 비중과 평균세율 추이(2012-2023)



## 참고문헌

- 김상조. 2014.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 모집단 기준 전환 100분위 자료를 기초로.” 경제개혁리포트, June, 1-35.
- 서형수의원실. 2018. “계층별 소득분포와 실효세율 추이 - 2018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본 개인소득 분배 상황과 시사점.”